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에스겔 · 디모데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4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에스겔 · 디모데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진함을 주소서.
-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부활의 은총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곧바로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삼일 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날, 믿음의 날

이 부활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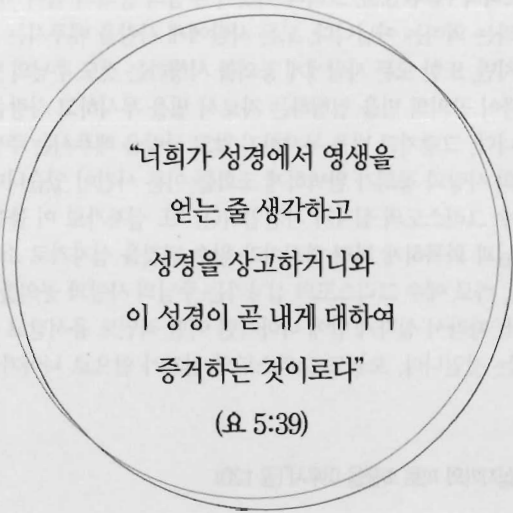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주의 성도들이여 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시 30:4).

2006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23절).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매우 감동적으로 보여 줍니다. 악인일 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회개를 통해 사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공의의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시행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재판관이 공의의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법을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 즉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6).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골 1: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장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12절).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척박한 땅에서 옮겨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이 계속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그 굵은 가지는 죄악으로 인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마치 뜨거운 바람이 지나는 길의 초목이 시들고 말라죽는 것처럼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작은 싹, 즉 다윗 가문을 새롭게 돌아나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탄생시켜 영원토록 “권세잡는 자의 홀”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세워진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금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의 번영과 영화는 잠시뿐이며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것을 의지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43절). 주님께서는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가증했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헛된 우상을 섬긴 사실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베어내다’ 혹은 ‘슬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슬퍼하면서 마치 베어내듯 그것과 완전히 결별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겔 18:32).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회개를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회개의 기회는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회개해야 할 때요 장소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내가 엎드려드리고 엎드려드리고 엎드려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27절). 주님께서 빼신 심판의 칼은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즉 시드기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스스로 주님의 심판의 칼을 불러들인 행위였습니다. 주님을 대적으로 삼은 악인의 종말을 보십시오. 그는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왕하 25:6,7). 한때 높은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악인의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이처럼 철저히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유다의 왕권은 “엎드리지고 엎드리지고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적인 메시아 왕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엎드려진 유다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의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차원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소망을 주는 회복과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할 때에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왕권과 주님의 나라를 의지할 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 40:31)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30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모두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것처럼 무너져가는 성읍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의로운 인물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로운 중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 성이 멸망한 것도 그 성읍에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듯이(창 18:22,23), 예루살렘의 부패도 극에 달했고, 의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감동적인 중보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출 32:11-13, 31,32).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행 7:55)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선교팀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찌니라 하시니라” (35절).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또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등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기는 했지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등 뒤로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수단으로만 몸부림치며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다 왕국이 지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결국 역사 속에 기여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징조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왕국뿐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찬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

기도 제목 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앞드러지게 할찌라”(21절). 에스겔이 소중한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아낌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될 때에 주님의 성소는 파괴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할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뎃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헛된 소망과 기쁨은 속히 깨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믿음도 깨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자 소망인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았습디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의 기쁨과 소망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21).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풍성한 금요집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열방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 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범죄하면 절단코 그냥 두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곧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구원 역사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한편 본장에는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였을 뿐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뻐함으로써 실상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경멸한 탓입니다(2,3절).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웃었던 열방을 주님께서는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찌라”(4절). 주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교만하게 비웃던 열방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비웃고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역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 25:11)

기도 제목 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는 두로가 주님의 진노를 당해 멸망하게 된 원인과 심판의 결과, 폐허가 될 두로의 참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죄악은 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고서도 돌이켜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상업적 이익만을 헤아려 기뻐하였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2절).

한때 유다와 동맹국이었던 두로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흥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3절). 두로는 매우 강성하여 그 식민지가 지중해 해안과 섬들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주님의 심판 예언과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B.C. 585년부터 572년까지 13년 동안이나 받으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B.C. 333년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바다에 제방을 쌓아 성을 함락시킴으로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한때 매우 강성하였던 두로의 번영은 영원한 것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스스로 피조물일뿐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옆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겔 26:15)

기도 제목 ①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 모르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는 먼저 두로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로를 배에 비교하여 그 아름답고 장엄한 자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배에 비유한 것은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배는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배가 되었습니다(4-11절). 이런 사실 때문에 두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온전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요하고 아름다웠던 두로는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배가 침몰하듯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은 부귀와 영화가 어느 한순간 물거품처럼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여”(26,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한 인간의 부귀 영화는 헛것이며 주님을 모르고 교만한 자는 결국 주님의 버림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겔 27:32)

기도 제목 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두로가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이 자신들의 번영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교만히 행한 탓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왕은 스스로 주님처럼 되려 하였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체 할찌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2절). 이처럼 두로의 지배자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하여 주님께서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찌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겔 28:7-9). 이러한 주님의 심판은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영화의 허점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두로를 심판하신 주님께서서는 장차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두로와 같이 부요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심판 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겔 28:12)

기도 제목 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소서. ②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주관자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애굽과 온 세상이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1-16절).

그리고 심판의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애굽의 미약한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애굽을 의지 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야만 하였습니 다. 애굽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애굽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징벌의 때가 지나면, 비록 보잘 것 없는 미약한 나라가 되겠지만, 그 백성과 땅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십 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흠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13,14절).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21절).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겔 29:16)

기도 제목 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찬양케 하소서. ②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전장에 이어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본 장에서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이 가까왔도다 여호와와 날이 가까왔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뚝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3-5절). 그리고 아직도 주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애굽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부터 헛된 구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사 애굽을 포함한 열방을 심판하게 하셨으므로,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겠고…”(25절).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느 탁월한 절대 군주나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주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겔 30:19)

기도 제목 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②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한때 근동 일대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부강했던 앗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실을 들어 애굽의 멸망 역시 필연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같은 사실을 예언할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주님이 각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을 줄도,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시며 온 세상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목적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운명과 이방의 멸망을 그저 무의미하게 바라보면서, 여호와와 영광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모두 한 분이신 주님의 주관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은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애굽은 강력한 앗수르가 멸망했듯이 주님의 때에 느부갓네살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비록 강력하였고 그 위세가 등등하였던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0-14절). 열방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찌라”(겔 31:10,11)

기도 제목 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②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파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은 주님께 반항하는 온 세상 나라들에게 내려지는 보편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날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에스겔은 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심판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주님 역사의 종말이 아니며, 그분의 백성의 종말도 아닙니다. 또한 이방 신들이 주님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패망을 본문에서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나라가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기까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영화로웠던 애굽과 바로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멸망에서 구하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은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과 바로와 같이 주님을 인정치 않는 세상의 주권이나 문화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모르고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불신앙의 세상을 긍휼히 여겨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엮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겔 32:12)

기도 제목 ① 주님을 모르는 불신 세계에 속한 영혼들이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소서. ②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 장은 첫 번째 예언으로서,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동체의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를 책임지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전 국가공동체의 생사가 걸려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악인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누가 이 사회와 교회를 깨울 수 있는 파수꾼입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겔 33:18,19).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와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겔 33:11)

기도 제목 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②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의 전반부에 묘사된 거짓된 목자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비유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목자들에 대하여 ‘자기만 먹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 목자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양의 기름과 털을 빼앗고,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강포로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본 장의 후반부에 묘사되고 있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언약 공동체의 참된 ‘회복’을 실현하는 분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가져다 줄 회복은 곧 화평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참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해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참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들을 먹고 그들의 목자가 될찌라”(겔 34:23)

기도 제목 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오직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에돔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대에 거주하던 에돔은 비옥한 팔레스타인에 항상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은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겔 35:11).

세상은 과거 에돔의 모습처럼 항상 성도들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순간 세상 속에서 영적인 곤경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곤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곁에는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음도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불신의 세력으로 인한 고난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겔 35:15)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소서. ② 모든 선교 훈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열 번씩이나 '나 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갖는 세 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은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에덴 동산같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회복의 국면이 총체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된 그 나라에서는 이제,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 미움과 한숨도 없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같은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겔 36:23)

기도 제목 ①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도록 도와 주소서. ② 각 위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자기 부인의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34장부터 집중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묘사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력과 그 결과(교회)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이 뼈들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임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죽어 버린 마른 뼈와 같다고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라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환상은 우리 역시 과거에는 마른 뼈처럼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공허에 풍성하신 주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찌어다”(겔 37:4)

기도 제목 ① 마른 뼈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케 하소서. ②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곡의 전쟁 준비를 기술하고 있는 전반부(1-9절)와 곡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반부(10-16절), 그리고 곡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7-2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곡'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세상 세력의 상징으로서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장차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한 이방 연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안과 밖으로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주님의 말씀을 파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불어 마곡 연합군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외적인 침공 행위였지만, 그것을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음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님과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여지없이 시작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겔 38:23)

기도 제목 ①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② 금요집회에 오고 가는 길을 주께서 보호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주님은 마곡의 연합군을 멸망시키시는 목적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주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 이방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6-8절). 이 심판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주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욱 여호와만을 신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 역시 비로소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회복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간 이유는 주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과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통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절 39:29)

기도 제목 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깊이 알게 하소서. ② 주일을 온전히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 회복과 직결시키면서, 주님 중심의 삶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처럼 실제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택함 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 장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태동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는 동시에, 장차 메시아의 도래로 임하게 될 주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성전의 휘장을 제거해 주셨기에, 성도들은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의 몸은 예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을 함부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들은 죄악의 길에서 마땅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 매순간 드려야 합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찌어다 하더라”(겔 40:4)

기도 제목 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성소의 내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1-4절),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5-12절), 성전의 외부에 대한 치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13-15절),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16-26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강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과 격려의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장에는 성소와 지성소 및 성전의 부속 건물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불경건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 바깥 뜰 문으로부터 성소까지 선지자 에스겔은 인도자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지성소 앞에서 에스겔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측량하기 위해 천사만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주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겔 41: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 묘사하는 전반부(1-14절)와 성전의 사면 담에 대한 측량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5-2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 주위의 방, 곧 뜰에 있는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은 제사장들이 주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먹고, 수종하는 의복을 갈아입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두는 거룩한 방입니다. 또한 본 장에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규모를 측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측량하는데, 이것은 성전 전체에 대한 규모를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주님은 성전의 담을 통해 성전의 거룩성과 세상의 속됨을 구분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성소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그 자체로 거룩성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처소로서 거룩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성전은 바로 성도 각각의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성도는 단지 공적 예배를 드릴 때만 경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생활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행동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겔 42: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중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5절)와 이스라엘이 과거의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주님의 약속을 묘사하는 중반부(6-12절), 그리고 번제단에 대한 설명과 봉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후반부(13-2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장까지는 성전의 외적인 양식들을 측량하고 그 용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본 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은 주님이 성전 건물을 열납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 성령의 전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죄가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막힌 담이 되며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주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겔 43:2)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수요 1,2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어 부르신 은혜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인하여 고난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 말고 목숨까지 바치는 태도로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주님의 구속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그 모든 일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군사는 언제나 자신의 사생활보다는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함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의 뜻을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케 하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헌신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게 설 것과 자신이 가르쳐 준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좇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하여 엄히 경계해야 하며, 아울러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온 유함으로 징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규칙대로 경기하여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행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딤후 2: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소서, ②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로 풍성한 구역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 예고하면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것을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배웠으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심지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까지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그 말씀을 좇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였습니다. 많은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킴으로써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오직 십자가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만 굳게 서십시오.

또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핍박을 피하려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두움의 세력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기까지 핍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좇아올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로 승리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따라서 핍박을 당할 때 말씀과 기도와 믿음, 그리고 인내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기도 제목 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때가 악하여 바른 교훈 즉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면 듣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며, 거짓된 교훈을 좇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수록 복음 전도자는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사수하며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으므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전파하는 데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은혜로 인한 승리와 함께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기도 제목 ① 항상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주일 예배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4월 구역 공과 초점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라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신지 삼 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407	마 21:1-9	종려주일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0414	막 16:9-11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0421	시 16:11	생명의 길	부활을 통해 열린 생명의 길을 걸으라
0428	시 30:1-4	감 사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종려주일

| 초 점 |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 찬 송 |

찬송가 131장 주 예수 나귀 타고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 본 문 | 마태복음 21:1-9

①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②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③무리의 대부분은 그 겹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④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음으로 路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 12:1 /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 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마 21:17 /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 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에 보내시며 그곳에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1:2 /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_____ 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마 21:3 /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_____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속 9:9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온 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주위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 21:9

이 외침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혈통이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자신의 왕국에 입성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이를 축하했습니다. 대개 왕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탔고, 군병과 신하, 군악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왕의 행렬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마 21:7,8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동들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 2:11 /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과 과 을 예물로 드리니라
눅 2:11,20 / (11)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을 돌리고 하며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후로 주님의 왕권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만왕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합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종려주일에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호산나”의 의미는?(시 118:25) _____

겸손하신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렬은 사뭇 달랐습니다. 주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한결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꽃다발 대신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겹옷을 길에 퍼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초라한 행렬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 23:37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_____
_____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사악한 교만, 위선,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늘의 부유함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갈보리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주님을 둘러쌌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써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위로와 이해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사 43:7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죽기까지 따릅시다.

| 간절한 기도 |

1.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2.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게 하소서.

2과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 초 점 |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 본 문 | 마가복음 16:9-11

☞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막 16:9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참조하여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요 20:15,16).

예수님 :

막달라 마리아 :

예수님 :

막달라 마리아 :

주님을 만난 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10절).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 16:11 / 그들은 _____ 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_____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녀는 주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으며 향품까지 준비 했습니다.

막 15:40

막 15:47

막 16:1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마리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충절과 진정한 사랑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어떠한 사건도 부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 부활은 가장 놀라운 이며 하나님의 입니다. (설교문 참조)

예수님은 죽음을 떨하시고 유한한 인생에 영원을 덧입혀주셨습니다.

요 14:6

부활의 증인이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져보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설교문을 참조하여 채우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부활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부활의 기적은 하늘과 땅에 관한 것이며, 유한에서 무한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없이는 결코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눅 18:17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존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 우리의 믿음과 찬양의 기초가 무엇인지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 위에 서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금요일은 단지 불행한 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날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하신 경이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삼일 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히 11:8-12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

부활절은 믿음의 날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 11:28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일곱 귀신들렸던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왔고 믿음, 소망,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자 그 놀라운 소식을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2.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하소서.
3.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3과 생명의 길

| 초 점 |

부활을 통해 열린 생명의 길을 걸으라

| 찬 송 |

찬송가 394장 주를 양모하는 자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본 문 | 시편 16: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
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음으로 路

인생에는 수많은 질곡이 숨어있습니다. 때때로 삶은 순탄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험난하고 힘겨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을 당하며 때때로 기쁨을 누립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상승 기류를 타다가 때때로 모든 것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다가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와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인생의 어느 날은 밝고 눈부신 햇살이 비추지만 어둡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얻거나 큰 사업이 잘 되어갈 때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인생을 어디에서 끝내느냐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무덤으로 향하는 외딴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부활의 은총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생명의 길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벧전 1:3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 3:3

고후 5:17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다시 사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 12:2 /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2:14,15 /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 14:19).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류, 곧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분의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요 20:21-23

요일 5:11,12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통한 영원한 기쁨

예수님의 부활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골 3:1-4

우리의 마음이 돈,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빠져 위엣 것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고전 1:17-20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 22:16,17

사람들은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의 경이로움에 대해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씁니다.

벧전 1:4 /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 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路

믿음만 있으면 하늘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이 기쁨은 계속될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소서.
2. 부활을 통해 열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4과 감사

| 초 점 |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라

| 찬 송 |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본 문 | 시편 30:1-4

^㉑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 내사 내 대
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㉒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㉓여
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
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㉔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
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이 감사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의 감사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 기도는 양식, 재물, 친구, 가족 등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끌어내시고, 고치시며,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감사의 찬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 88:3,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주님을 높이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과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시 30:1

눅 1:78,79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대적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 30:2,3

사 38:18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찬 우리의 본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호 6:1 /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좋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렘 3:22

우리는 스스로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행 3:16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계 4:8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 30:4

사 6:3

십자가로 路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시 30:6-12 /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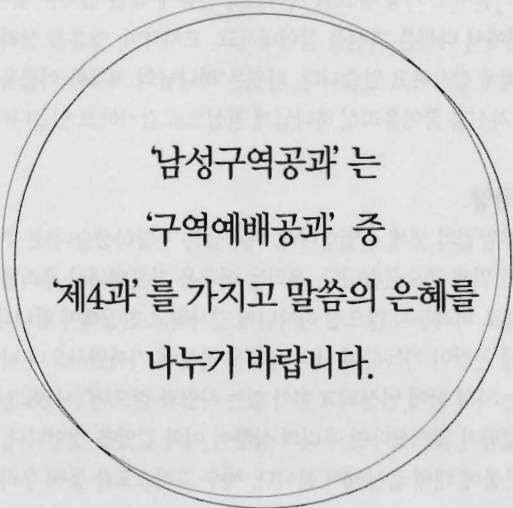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선물인 “부활의 은총”이 진실로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두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영원한 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2.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케 하소서.
3. 영원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송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감 사 (시편 30:1-4)

이 감사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는 양식, 재물, 친구, 가족 등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끌어내시고, 고치시며,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

오늘은 부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왔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시 88:3,4).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주님을 높이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러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 니이다”(1절).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과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사가랴 역시 이처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돌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눅 1:78-79).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실이 되었고, 사가라는 그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대적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또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2,3절). 다윗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사 38:18).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십니다. 주님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전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찬 우리의 본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야 6:1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좋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약 흡연, 거짓맹세,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그런 노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부로부터 구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렘 3:22a).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렘 3:22b). 우리는 스스로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때 주님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16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계 4:8).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윗은 회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4절).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 6:3은 말합니다. “서로 찬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시 30:6-12).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두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영원의 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올리시고, 고치시며, 살리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4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이청수(1-7일), 황진섭(8-15일), 이정훈(16-23일), 김태석(24-30일) 목사
구약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